

예수님 이야기

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나 레 이 선

가버나움에서 엄청나게 엄청난 사람들이 대단하게 대단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 위해 한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보듬이(번역할 때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의 이름으로 번역해주세요)와 친구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웅성웅성)

소 망 이
(파마머리)

너네 들었어? 들었어?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 들었어? 그분이 어떤 병이든 다 고치신다던데! 그럼 혹시 중풍병에 걸린 우리 보듬이도? 우리 보듬이 데리고 가보자!!!

투 텔 이
(빨 간 옷)

하지마! 하지마! 내가 너 그 말할 줄 알았어, 있자나 너! 뭐하려고 좀 하지마! 하지마!

용 기
(두 건)

하면 돼지! 못 할게 뭐 있냐.
들것의 손잡이는 4개! 우리가 한쪽씩 들 수 있잖아~~

투 텔 이
(빨 간 옷)

(투정하듯) 하.. 들것을 어떻게 들어... 들 수 있어서 들것인가?
(마지 못해 하면서도 의지를 갖고) 내가 앞에 설게~~

나 레 이 선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 심 이
(연두색옷)

헐... 망했다... 그냥 갈까?....

용 기
(두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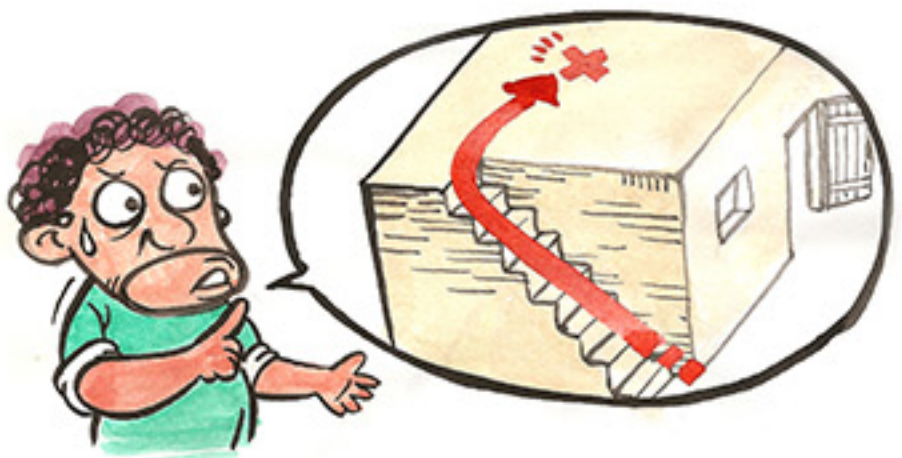
야~! 가면 돼지, 못 할게 뭐가 있어!! 여기까지 들고왔는데!! 보듬이를 우리가 아니면 누가 보듬어 주냐~~!!

투 텔 이
(빨 간 옷)

어우, 안돼~ 하지마! 하지마! 너 용기 좀 갖지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하지마! 하지마!

소 망 이
(파마머리)

(약간 머뭇거리며) 우리..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우리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보듬이를 예수님 머리 위로 내리는 거야! 어때?? 좋은 생각이지 않아??
그치? 그치?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아아아~~~!!





나 레 이 선 잠시~후! 친구들은 보듬이가 누워있는 들것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투 털 이 (빨 간 옷) 으잉차... 하지말자고 했지!! 이게 되겠냐??? 에?? 근데 벗겨지네???

소 망 이 (파마머리) 봐봐! 너네 지붕 뜯어지는거 보이지?? 거의 다 된거 같아!! 조금만! 조금만 더! 힘을 내 보자! 하나! 둘! 하나! 둘! 여잉차!!!!

군 중 1 얼레? 어어어? 저거 보듬이랑 친구들 아니야? 어이구 예수님 보러 재네도 왔네~~

군 중 2 진짜 보듬이네~~ 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귀신인 줄 알았잖아~~

예 수 님 이 동네는 사랑이 가득하구나~ 보듬이?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나 레 이 선 친구들은 들것을 끈으로 묶어 중풍병 걸린 보듬이를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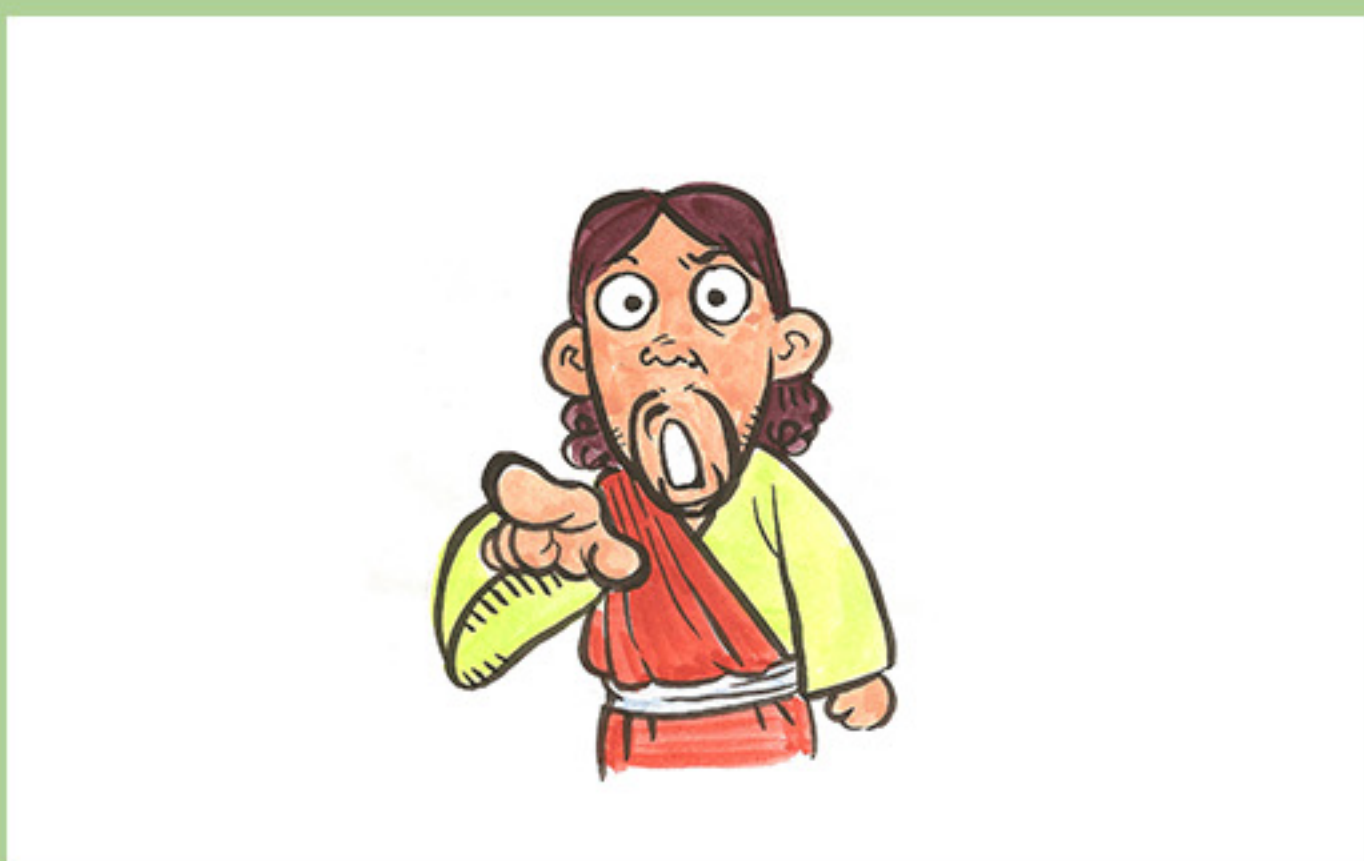
소 망 이 (파마머리) (친구들에게) 애들아!! 예수님이셔,
(예수님께) 예수님!! 예... 예수님!! 놀라시게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친구 보듬이가 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해요.
예수님이 꼬오오옥~! 고쳐주세요!
저희는 예수님이 고쳐주실거라고 믿어요!!

친 구 들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꼬오오옥이요!!

나 레 이 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사람들도 함께)

예 수 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애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



나 레 이 선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은 좋아했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율법교사들은 놀랐습니다.

율 법 교 사 (수 염) 헐~ 지금 예수가 죄를 용서한다고 했나? 나만 들은 거 아니지 자네들도 들었지? 다들 들었지?

율 법 교 사 (민 머리) 예, 들려들었습니다. 지금 분명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저희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율 법 교 사 (빨 간 옷) 그렇습니다.
1 다시 365 다시 3927조 하나님모독죄에 딱 걸렸습니다.

율 법 교 사 (수 염) 자기가 뭐라고 오직 하나님 한분만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한다는 거야?

나 레 이 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교사들의 속생각을 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말해서
혼란스러워하는구나. 지금부터 내가 땅에서 죄를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주겠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리고 네 누운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거라!



중풍병자 어... 내가 움직인다.. 손가락이.. 팔이.. 발가락이.. 다리가... 어? 어!
나레이션 내 몸이.. 내 몸이!!! 내 몸이 움직인다!! 일어날 수 있어!!! 어어!!!
중풍병에 걸렸던 보듬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었던
누운자리를 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높이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소망이 (파마머리) (울먹임) 애들아 다 봤지, 봤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대박.. 진짜 대박..!



용기 (두건) (울먹임) 진짜 대박...!! 역시 우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그리고 너 이제 하지마(라고)
하지마, 알았지? 아참, 보듬이는 어딴어? 보듬이에게 빨리 가보자!!

투덜이 (빨간옷) (울먹임) 와.. 하지마! 라고 내가 했던거 미안해..
다음에 내가 또 하지 마~ 그러면 날 때려줘 알았지?

나레이션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서북쪽으로 위치한 성읍이다. 다메섹에서 지중해 방면으로 왕래하는 통로로
상업이 번창하여 예수님 시대에 가장 변화하였다.